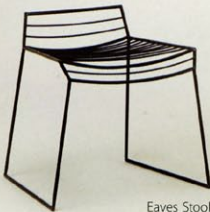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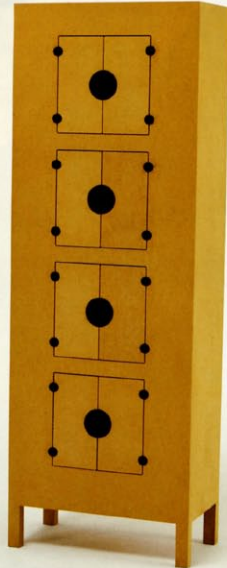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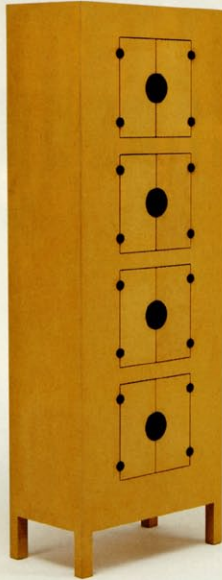


A New Beginning

가구디자이너 박종호와 박준범이 새롭게 시작한 디자인스튜디오 '딘앤딤'의 가구를 펼쳤다. 온통 새롭지만 한국 고유의 전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Eaves Stool



Muk Storage

새로운 시작

박종호와 박준범은 각자 개인작업을 해오던 젊은 가구디자이너이다. 박종호가 공간의 어울림을 찾고, 공간을 아우르는 가구를 만드는 쪽이라면, 박준범은 철을 직접 자르고 구부리며, 갈고 밀어 이어 붙여 나무와 똑같은 형태의 가구를 만들어냈다. 물론 두 사람은 이미 '바오(위형우, 박준범, 박종호, 한성재로 이루어진 디자인 그룹이다)'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함께해왔다. 하지만 협업이라기 보다 각자의 작업을 그저 함께 전시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작년 봄에 바오를 인트뷰하면서 '시간이 흘러 바오를 다시 만났을 때도, 여전히 어떤 구속 없이 각자, 또는 함께하는 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그들을 잠시 잊었다. 꾸준하다면 어디에서든 만날 테니, 굳이 찾지 않았다는 것이 더 정확한 말일지도 모르겠다. 잊었던 그들을 다시 언급하는 건, 박종호와 박준범이 언급할 만한 가구를 선보였기 때문이다. 이번엔 각자의 이름도, 바오라는 이름도 없다. 오직 '딘앤딤(din & dip)'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이다.

딘앤딤은 박종호와 박준범이 유럽 가구디자이너 조명반의 흐름 속에서 차별화되는 한국 디자인가구의 경쟁력을 보여주고 싶다는 패기를 안고 시작한 디자인스튜디오이다. 그들이 매만진 가구에서 한국 전통의 무늬와 형태가 돋보이는 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리라. 재미있는 건 그들이 매만진 가구가 현대디자인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통적 요소에서 따온 무늬와 형태, 그리고 간결한 선과 면의 구성이 현대에 가장 집중받고 있는 비움의 미에 부합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딘앤딤은 전통 안에서 나름의 새로움을 강조해나간다. 그것이야말로 현대에서 한국의 전통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길이라 믿기에, 여기에 딘앤딤이 매만진 가구를 펼쳤다. 그들의 가구가 '한국 디자인가구 스타일'이라고 불릴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Muk Storage

한국 전통 장의 기능과 요소를 현대적인 느낌으로 재해석한 작업. 전통 장은 이불, 의복 등을 보관하기 위해 부피가 크고 주로 심실에서만 사용하지만, 목 스토리지는 수납의 기능은 유지하되 규모와 비율을 축소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위벽간'이나 '장식'과 같은 전통 장의 특징을 디자인적 요소로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Eaves Chair, Stool

한국 전통 가옥의 처마와 지붕에서 볼 수 있는 여백의 아름다움, 직선과 곡선의 조화를 배려해 디자인했다. 불필요한 장식과 기능을 배제하고 실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간결한 선만으로 견고하게 구성했다. 다리는 안정감을 주기 위해 직선으로 디자인했으며 그 위의 구조는 단아한 곡선으로 구성했다.



Ron Table

Eaves Chair

Ron Table

회의 테이블로, 다리에 2개의 바퀴를 달아 쉽게 이동할 수 있게 하여 사용의 편의성을 높였다. 하나의 선으로 이뤄진 간결한 구조를 통해 시원한 공간을 연출하며, 양방향으로 개방된 서랍을 달아 수납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했다.

Seo Desk

과거 사랑방에서 사용하던 '서안'이라는 한국 전통 책상의 쓰임과 형태를 바탕으로 디자인한 책상. 간결한 선으로 이뤄진 책상의 구조와 타공판으로 제작한 서랍은 공간에 여백의미를 살림으로써 시각적인 부담을 덜 뿐만 아니라 좁은 실내에 알맞다.



Seo Desk

Eaves Stool